

# 『國朝寶鑑』1782年 板本の 刻手 研究\*

A Study on the Engravers of *Gukjobogam*(『國朝寶鑑』) Printed in 1782

김 상 호 (Kim, Sang-Ho)\*\*

## ◁ 목 차 ▷

- |                  |               |
|------------------|---------------|
| 1. 緒言            | 4.2 京郷의 民間 刻手 |
| 2. 『國朝寶鑑』의 開板 過程 | 4.3 刻僧        |
| 3. 刻手의 動員        | 5. 結語         |
| 4. 刻手秩의 分析       | <참고문헌>        |
| 4.1 校書館의 刻匠      |               |

## < 초 록 >

본 연구는 『國朝寶鑑』의 개관 사정과 監印事實, 그리고 144명에 달하는 각수의 동원내역 및 활동사실을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 정조가 목판으로 특별히 『國朝寶鑑』을 간행한 이유, 번각용 정서본을 활자로 찍은 이유, 전국에서 각수를 동원하게 된 이유 등을 밝혔으며, 많은 인원의 뛰어난 각수가 참여함으로써 刻字의 일은 예상보다 빨리 마무리되었고, 校書館의 工匠 李時泰를 비롯해 工匠 南太伯, 京刻手 朴雲秀, 鎭川의 郷刻手 朱世贊 등이 당대 원로 그룹의 善手였고, 73명에 달하는 刻僧 또한 지역별로 각별히 선발된 솜씨 좋은 인원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要語: 각수, 국조보감

\* 이 논문은 2009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anghkim@daegu.ac.kr)

접수일: 2009년 12월 3일 최초심사일: 2009년 12월 3일 심사완료일: 2009년 12월 10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historical conditions of publishing and engraving the woodblocks of *Gukjobogam* (『國朝寶鑑』) printed in 1782, and the characteristics and activities of 144 engravers mobilized for this project. This study clarifies the reason for printing *Gukjobogam* from woodblocks, printing the base copy for reproduction with movable types, and mobilizing 144 engravers from all over the country.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The recruited engravers included craftsmen who belonged to Gyoseogwan(校書館), civilians, and monks; Since many highly skilled engravers participated in this project, the task of engraving could be done much earlier than expected; Among those engravers Yi Sitae(李時泰), the master engraver called from Gyoseogwan, Nam Taebaek(南太伯), Pak Unsu(朴雲秀), and Ju Sechan(朱世贊), etc. were the best, and 73 Buddhist monks were also excellent engravers especially selected from all over the local provinces.

Key words: Engravers, *Gukjobogam*(『國朝寶鑑』)

## 1. 緒言

『國朝寶鑑』은 조선시대 역대 국왕의 사적을 기록한 편년체의 역사서로 세종 때 편찬되기 시작하여 세조 때 처음 간행되었고, 이후 숙종, 영조, 정조, 헌종, 고종년간에 증보되었다. 그 중 정조 6년(1782)에 개판된 『國朝寶鑑』은 총 68권 22책으로 태조부터 영조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비록 선왕이 이룩한 일이 많아도 그것을 기록한 실록은 엄히 보관하기 때문에 볼 수 없음을 지적하고, 정조는 즉위 5년(1781) 7월 10일에 『國朝寶鑑』의 찬술을 명하였다.<sup>1)</sup> 그 이듬해 4월에 찬술이 끝나자 鄭昌聖, 沈念祖를 監印堂上으로 삼아 5월 초에 간행사업을 시작하여 8월에 인출의 일을 마무리하고, 11월에는 정조가 春塘臺에 나아가 진상본을 받게 된다.<sup>2)</sup>

위와 같은 내용의 『國朝寶鑑』 편찬 및 간행의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國朝寶鑑監印廳儀軌』이다. 정조 6년(1782) 11월 23일에 堂上 鄭昌聖, 都廳 趙城鎭이 왕명을 받아 엮은 것으로<sup>3)</sup> 纂輯廳座目, 纂輯廳事目, 纂輯廳事實, 纂輯廳移文, 纂輯廳甘結, 纂輯廳實入, 監印廳座目, 監印廳事實, 御製序文, 總敍, 卷帙, 凡例, 跋文, 箋文, 儀註, 禮關, 監印廳移文, 監印廳來關, 監印廳甘結, 監印廳實入, 別單, 賞典, 工匠의 순으로 관련 사실이 담겨 있다.

특히 『國朝寶鑑』의 개판과정과 각수의 동원 및 활동에 관한 것은 날자순으로 관련문건이 기입된 監印(廳)事實, 監印廳移文, 監印廳來關, 그리고 刻手秩이 적힌 工匠의 항목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일시에 방대한 양의 책을 간행하기 위해 급히 전국 각지에서 동원된 144명의 각수 명단은 특별히 그들이 동원된 지역이 기재되어 있어 당시 각수의 지역별 분포나 활동사실을 파악하는데 큰

1) 『正祖實錄』 12卷. 5年 7月 10日 庚戌. 實錄則石室金櫃其藏甚秘人不得見之(中略)全書名之曰國朝寶鑑則是或爲闡揚先麻修舉闕典之一端耳.

2) 上揭書 14卷. 6年 11月 24日 丁巳. 國朝寶鑑成編輯諸臣具箋以進上御春塘臺親受.

3) 上揭書 14卷. 6年 11月 23日 丙辰. 寶鑑編輯不可無儀軌近來各都監儀軌義例雜糅今番則大臣主管仍令堂上鄭昌聖都廳趙城鎭專意編摩自國初寶鑑創始時事實至于今番續纂之舉而詳細載錄無或遺漏.

도움이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國朝寶鑑監印廳儀軌」를 바탕으로 「國朝寶鑑」의 개판에 참여한 각수의 동원사실과 지역별 분포 등을 확인하고, 기존의 각수명 목록을 참고하여 일부 각수의 판각활동사실 및 시기 등을 밝혀보고자 한다.

## 2. 「國朝寶鑑」의 開板 過程

정조는 「國朝寶鑑」을 편찬하고 그것을 어떻게 간행할지에 대해서 領議政 徐命善, 戶曹判書 金華鎮, 刑曹判書 徐有隣 등과 논의하였다. 그리하여 목판으로 간행하는 것이 활자보다 비용의 측면에서 物力이나 工費가 많이 드는 것을 확인하고, 목판으로 개판할 때 정서하는 일, 그리고 외방에 보내어 판각을 분담하는 일, 필요한 각수 인원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비록 비용은 더 들지만 국가의 중대한 사업이고, 널리 배포하기 위해서는 목판으로 인출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으며, 판각용 정서본은 활자로 인출하여 번각을 하되, 외방에 판각을 분담하여 폐 끼치는 일은 삼가고, 대신 전국에서 필요한 각수 인원을 동원하기로 결정하였다.<sup>4)</sup> 특별히 활자로 인출해 번각하기로 한 것은 전질을 새로 서사할 때 物力이 많이 든다는 측면도 고려되었으나, 1장씩만 활자로 인출해 번각하는 것이 字樣의 측면에서 좋다는 의견이 우선시 되었으며,<sup>5)</sup> 당시 寫字官 한 사람이 하루에 2, 3장을 쓰는데 동원할 수 있는 善寫者가 10여인이 되지 못해 간행의 일이 지체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sup>6)</sup>

監印堂上 鄭昌聖이 목판의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됨을 이유로 활자로 간행할 것을 청하자, 정조는 목판으로 간행된 御製와 寶鑑을 비교하자면 경중의 차이가

4) 「國朝寶鑑監印廳儀軌」監印事實. 壬寅 4月 25日. 正書之役亦甚爲難今此印役先以活字印出伊後鑿刻(中略)上曰所重在何論物力與工費乎其爲廣布則木板勝於活字矣.

5) 上揭書 監印事實. 壬寅 4月 28日. 故誠以活字先印一張卽爲反刻則字樣果好敢此持入矣上命進覽曰字體果好依此開刊可也.

6) 上揭書 監印事實. 壬寅 4月 26日. 若以木板始役則當使寫字官正書而善寫者不滿十餘人一人所書一日不過二三張寫役似遲.

없으니 굳이 활자로 인쇄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는바,<sup>7)</sup> 당시 조정에서 중요한 책은 비용과 시간의 측면에서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활자로 찍기 보다는 목판으로 찍기를 선호했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개판을 위해 필요한 판목을 구하는 일이 쉽지 않아 舊板을 다수 취용하기로 결정하였다.<sup>8)</sup>

선조와 숙종의 兩廟寶鑑은 기존의 활자본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만 활자로 정서본은 마련하는데, 그 양은 1,000장 정도이고,<sup>9)</sup> 하루에 25장 이상씩 인출해내면 그 일은 9월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었다.<sup>10)</sup> 그러나 실제 일은 보다 빨리 진행되어 刻字는 7월 초에 마무리가 되어 진상을 위한 1질이 인출되기도 하였다.<sup>11)</sup> 다만 跋文이나 箋文, 序文, 纂輯人 姓名 등을 정하는 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그리하여 8월 11일에 印役이 거의 끝났는데, 箋文은 인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고,<sup>12)</sup> 8월 25일에 印役은 마쳤는데, 跋文을 바로잡지 못해 진상 기일이 늦어지고 있다고 했으며,<sup>13)</sup> 10월 6일에는 序文과 跋文은 끝났지만, 書進人의 姓名을 취하지 못했다고 하였다.<sup>14)</sup> 그러나 이후에도 다시 跋文을 고쳐 쓰고, 오자를 다시 새기는 일들로 해서 「國朝寶鑑」의 간행사업은 11월이 되어서야 마무리가 된다. 비록 판각의 일이 많은 각수를 동원하게 되어 계획보다 빨리 끝났지만, 다른 일들로 해서 그 시간은 배 이상 소요되었던 것이다.

당초 「國朝寶鑑」의 간행 방식을 논의할 때에 정조는 인쇄할 부수에 대해서 진상건 30건, 반사건 50건으로 정하였다.<sup>15)</sup> 이튿날 堂上이 5史庫에 소장할 책을

- 7) 上揭書 監印事實. 壬寅 4月 26日. 御製則皆以木板刊印寶鑑比御製似無輕重之別不必活印矣.  
 8) 上揭書 監印事實. 壬寅 4月 30日. 寶鑑印役以木刻爲定以活字繙刻自作木則多以舊板取用.  
 9) 上揭書 監印事實. 壬寅 4月 28日. 除却兩朝寶鑑其餘一千張以鑄字印出.  
 10) 上揭書 監印事實. 壬寅 4月 26日. 一人所刻三日當爲一板訖役遲速專在匠手之多寡矣(中略)今九月內似可畢役矣.  
 11) 上揭書 監印事實. 壬寅 7月 初4日. 刻役今幾垂訖(中略)進上件一帙已爲完印.  
 12) 上揭書 監印事實. 壬寅 8月 11日. 印役今幾告完而箋文姑未入印矣.  
 13) 上揭書 監印事實. 壬寅 8月 25日. 寶鑑印役當此漸寒之時不可不從近訖工而跋文尙未釐正誠爲可憫矣.  
 14) 上揭書 監印事實. 壬寅 10月 初6日. 寶鑑印役今既就緒而跋文亦已刊出乎書進人姓名尙不取稟未知誰果書之乎.  
 15) 上揭書 監印事實. 壬寅 4月 29日. 傳曰進上件則貼冊紙三件卷冊紙五件白綿紙十二件白紙十件合三十件爲之頒賜五十件皆以白紙爲之.

진상건에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더 인쇄해야 할지를 묻자, 정조는 반사건을 가져다 쓰라고 하였다.<sup>16)</sup> 그러나 일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그 수가 부족하여 編校, 監印을 맡은 관원에게 중복 지급을 하지 않아도 20건이 더 필요해서 白綿紙 15건, 白紙 5건을 추가해서 인쇄하게 되었다.<sup>17)</sup> 실록에는 당시 摠裁大臣 이하 85명에게 寶鑑을 하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바,<sup>18)</sup> 실제 인쇄 부수는 당초 계획이나 이후 추가분보다 더 많았음을 알 수 있다.

### 3. 刻手의 動員

처음에 목판을 새기는데 필요한 각수 인원은 50명 정도로 예상되었다.<sup>19)</sup> 그 인원의 확보가 서울에 있는 京刻手만으로 충분한지를 정조가 묻자, 監印堂上은在京人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답하였고, 이어 兩南과 兩西의 각수들을 상송하도록 관문을 보내야 한다고 하였다. 당시 정조는 영남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 진흥이 있어서 각수 동원을 삼가고자 하였다. 하지만 일을 마치는 시기는 각수 한 사람이 3일 걸려 1판을 완성하는데 장인의 다과에 달려 있고,<sup>20)</sup> 영남지역의 각수를 동원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장인을 얻기 어렵다는 신하들의 건의에 따라 결국 영남관찰사를 지낸 이조판서에게 사정을 묻게 되었고, 이조판서는 영남지역에 생업으로 일하는 각수가 많이 있으며, 그들은 급료를 주면 올 것이라 보고하기에 이르렀다.<sup>21)</sup>

16) 上揭書 監印事實. 壬寅 4月 30日. 昌聖曰 進上件及頒賜件已知定數而五史庫所藏冊子入於三十件中乎三十件外當可印乎上曰以頒賜件爲之可也.

17) 上揭書 監印事實. 壬寅 11月 11日. 本閣知悉元磨鍊頒賜件爲五十件云 而編校監印諸臣雖不疊授更有二十件可準七十員之數依此分付該曹白綿紙十五件白紙五件使卽加印.

18) 『正祖實錄』 14卷. 6年 11月 26日 己未. 頒國朝寶鑑于摠裁大臣以下八十五人.

19) 前揭書 監印事實. 壬寅 4月 25日. 華鎮曰若開木板則刻手當以五十人爲定矣.

20) 上揭書 監印事實. 壬寅 4月 26日. 上曰至於嶺南則方設大賑不可推捉矣昌聖曰一人所刻三日當爲一板訖役遲速專在匠手之多寡矣.

21) 上揭書 監印事實. 壬寅 4月 30日. 李命植曰果多刻手而渠輩以此爲生業故雖使上來渠輩受料得食必皆樂赴矣.

문제는 중앙에서 부족한 각수인원을 충당하는데 영남지역에서 동원되는 각수 인원이 절대적이긴 하였으나, 영남지역의 각수 가운데에서도 솜씨 좋은 刻僧들이 오면 일을 빨리 끝낼 수 있었는데, 당시 법으로 승려의 입성이 금지되었다는 점이 었다. 정조는 그들이 성 밖의 摠戎廳에 머물면서 刻字의 일을 하도록 하였는데,<sup>22)</sup> 실제로 儀軌의 工匠秩을 참고하면 영남지역에서 동원된 각수는 俗刻이 6명, 僧刻 40명으로 승려 인원이 민간인보다 훨씬 많다.

본격적으로 지방에서 각수가 올라오기 전인 5월 4일에 이미 활자로 먼저 찍어서 번각한 것이 35판에 이른 것으로 儀軌에 기록되어 있다. 이 때 판각을 담당하는 모두가 京刻手였다. 그 인원은 처음에는 18명이었으나, 3명이 觀象監에서 冊曆을 간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돌아가서 15명이 남아 일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sup>23)</sup> 간행사업이 종료된 후에 작성된 儀軌의 工匠에는 서울에서 동원된 민간 각수는 모두 14명이고, 校書館 소속의 각수가 10명으로 기입되어 있다. 따라서 觀象監으로 3명이 돌아가고 남은 15명 중에 私手나 工匠 누가 누락되었는지, 아니면 이후 다른 1명도 곧 빠지게 되어 명단에서 제외되었는지, 또 觀象監으로 돌아간 이들은 工匠이었는지 확실하지 않다.

지방에서 빨리 도착한 것은 해서지방의 각수였다. 5월 9일자 문건에는 刻僧 2명을 포함한 10명의 각수가 곧 도착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sup>24)</sup> 儀軌를 참고하면 5월 25일에는 70여명의 각수가 일하고 있어서 석 달 정도가 지나면 刻字의 일이 끝날 것으로 보고되었고,<sup>25)</sup> 며칠 뒤인 6월 1일에는 각수 인원이 110여명에 이르러 다음 달이면 刻字의 일이 끝날 것으로 보고되었는데,<sup>26)</sup> 7월 4일의 문건을 참고하면, 刻役이 거의 끝나 鄉刻手는 내려 보내고, 在京人은 순서를 정해 줄여

22) 上揭書 監印事實. 壬寅 5月 4日. 鄭民始曰印役雖重僧徒不可使之入城留置於摠戎廳自外刻納則好矣.

23) 上揭書 監印事實. 壬寅 5月 4日. 寶鑑印役今者所印爲三十五板矣(中略)自京求得者只十八人而三人則觀象監爲刊曆還爲招去故只以十五人付役矣.

24) 上揭書 監印事實. 壬寅 5月 初9日. 海西刻手十名今姑上來而其中有僧刻手二名.

25) 上揭書 監印事實. 壬寅 5月 25日. 上曰刻手來到之數幾何昌聖曰七十餘名矣(中略)上曰幾月可訖役乎昌聖曰三朔庶可訖矣.

26) 上揭書 監印事實. 壬寅 6月 初1日. 工匠之付役今至一百十餘人來月間當畢役矣.

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sup>27)</sup> 이로써 본다면 이후에도 다수의 각수가 속속 도착하여 많이 인원이 刻字의 일을 감당함으로써 계획보다 개관이 빨리 마무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國朝寶鑑』의 개관을 위해 監印廳이 八道와 兩都에 문건을 보내어 域內 匠手 중에서 善刻者를 가려 보낼 것을 요구하자, 지방관아는 각각의 사정에 따른 회신을 하였는데, 그 중에서 江華府와 開城府는 각수가 없어서 못 보낸다고 했고, 황해도는 배정된 10명에 대해 康得秋 등 10명을 보낸다고 했으며, 평안도는 배정된 인원이 원래 15명이나 도내에 각수 인원이 적어 각별히 善手 10명을 가려 뽑아서 기송한다고 회신했다. 그리고 경상도는 당초 監印廳이 요구한 각수 인원은 俗刻 35명, 僧刻 50명인데, 원래 俗刻은 案付가 없고, 僧刻은 수가 많지 않아 단지 30명을 각 읍에 나누어 배정했다고 답하였다. 전라도는 단순히 분정한 각수를 상송한다고 했는데,<sup>28)</sup> 이처럼 지역사정에 따라 중앙에서 추정된 인원과 실제 동원 가능한 인원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監印廳이 요구한 인원과 儀軌에 그 명단이 실린 인원을 비교해보면, 황해도는 10명에 8명, 평안도는 15명에 20명, 경상도는 85명에 46명이다.

#### 4. 刻手秩의 分析

儀軌에 기입된 144명의 각수 인원을 지역별 및 신분별로 구분하여 그 명단을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27) 上揭書 監印事實. 壬寅 7月 初4日. 刻役今幾垂訖故鄉刻手盡爲下送在京人亦次第減下矣.

28) 上揭書 監印廳來關. 壬寅 5月 日. 江華府爲回移事, 摠戎廳爲相考事, 開城府爲回移事, 黃海道爲牒報事, 平安道爲相考事, 慶尙道爲相考事, 全羅道爲相考事 參照.

<표 1> 지역별 각수 명단

구 분	지역	刻 匠	刻 僧	
校書館 10		李時泰 南太伯 田得春 李壽行 韓命大 朴就安 劉澤龍 崔福煥 朴順興 金哲金		
私手 134	京 14	朴雲秀 朴次秀 李再春 劉澤興 石德崇 太震輝 李泰成 崔漢福 太聖儀 田福喆 李潤澤 鄭昌彬 尹鳳儀 高天浩		
	鄉 120	鎭川	朱世贊	
		沃川	朴中得	
		杆城		成哲
		江陵		松湜
		平壤	鄭光敏 朴中郁 高民厚 李宅亨 高奉民 金起澤 鄭淳 姜信亨 姜仁柱 金光白 高敬仁 鄭泰坤 金鳳彥	
		肅川	金沃伊 鄭仁己	登白 承輝
		安州		有一 學順 丁學
		延安	康得秋 張鵬雲	
		白川	趙仁環	
		豐川	金龍甲	
		海州	趙尙賢 朴相大	
		長淵		抱律 玄律
		慶州		惠天 致人 定寔
		晉州		有源 贊連 寬連
		尙州	尹聘莘 金時澤	快曄
		星州	李進輝	摠成 德演
		安東		在冲 有淨
		義城		奉話 寶貞
		密陽		太甘 學宗
		清道		宗戒 三學
		漆谷		奉岑
		新寧		必弘
		陝川		漢白 瑞漢
		宜寧		翠已 正順
		永川		鳳翼
		義興	朴今衫	
		昌原		太澄 最言
		慈仁		會心
	興海		泰曄	

	安義		厚星 敦有
	居昌		勤悅
	高靈		呂行
	丹城		鼎守
	善山		戒孫 頓守
	青松		月青
	順興	宋佑慶	彩順
	河陽		自演
	聞慶	張時昌	
	榮川		雷壯
	慶山		就彥
	長興		尙一 永訓
	綾州		慕永 最連
	寶城		兌奎 仁聖
	康津	鄭德彥	妙永
	羅州	姜太星 朴呂大	
	靈光	金壽億	慧樞
	咸平		世侃
	樂安		樂行
	順天	李春赫	帆長
	南原	趙德孫	處尙
	雲峰	李聖采	刻順
	玉果	鄭來潤	
	淳昌	高德孫	
	長城	李亨道 李在亨	
	同福		日永 玉聖
	南平	李得元	永活
	光州	金光福	肯文 水澤
	靈巖		演覺
	海南		福信 璽訓
	興陽	鄭文珪	
	光陽	李得春 梁處三	
	求禮		表訓
	和順	朴壯云	有察
	扶安	卜良輝	
	潭陽		進玄
144		71	73

#### 4.1 校書館의 刻匠

校書館에서 동원된 공장으로 주목할 만한 이는 바로 李時泰이다. 그는 기술이나 경륜에서 당대 가장 뛰어난 각수였음이 분명하다. 이미 30여 년 전에 조성한 王室墓域의 石刻役事에도 여러 번 참여하여 1등 각수로 꼽힌 바 있으며, 죽책각수로도 활동하였다.<sup>29)</sup> 儀軌의 工匠秩에는 李時泰의 이름이 각수 가운데 첫 번째로 등재되어 있다. 특별히 「國朝寶鑑」의 간행에 공로가 있는 인원을 監印廳別單에 열거함에 있어서 校正都刻手라 하여 寫字官, 校正唱准에 이어 그 이름을 별기해놓고 있기도 하다. 영조년간에 이미 솜씨가 뛰어난 각수로 인정을 받았고, 그로부터 30년이 지나 노년이었을 법한 정조년간에는 각역의 일을 실질적으로 관장하였으니, 李時泰는 18세기 후반에 손꼽히는 각수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할 만하다.

校書館에 소속된 각수로 李時泰 다음에 이름이 기재된 인물은 南太伯이다. 그는 李時泰와 마찬가지로 30여 년 전의 王室墓域 石刻役事に 참여하였고, 죽책각수로도 활동하였다. 역시 경륜이 있는 원로로 솜씨가 뛰어났을 것이다.

각수로서 1등에 분류된 이는 李壽行 등 21명이고, 2등에 분류된 각수는 外方刻手 朱世贊 등 120명이 있는데, 別記된 李時泰를 포함하면 모두 142명이다. 이는 儀軌 말미에 기재된 工匠秩의 각수 전체인원 144명과 2명의 차이가 있는 수치이다. 상을 내리기에는 사역한 날짜가 너무 적어서 단지 이름만 남게 된 것인지, 아니면 각수가 다른 역할까지 수행해 다른 항목에 이름이 적힌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문제는 1등, 2등, 3등의 구분이 그 솜씨도 고려되었겠지만, 보다 중요한 요인은 刻字에 참여한 일자가 아니었는가 하는 점이다. 2등에 분류된 120명의 각수가 朱世贊을 포함해 모두가 外方刻手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명단에 적힌 鄕刻手 120명과 2등으로 분류된 각수 인원 120명의 수치는 정확히 일치한다. 그렇다면 校書館의 刻匠과 京刻手, 그리고 鄕刻手 간의 등급의 차이는 刻字

29) 김상호, “英祖年間の 王室墓域 石刻役事に 참여한 刻手 研究,” 『書誌學研究』 43輯(2009. 9), 111.

의 솜씨보다는 사역한 날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4.2 京鄕의 民間 刻手

校書館의 工匠과 지방의 刻僧을 제외하고 『國朝寶鑑』의 간행에 참여한 중앙과 지방의 민간 각수 인원은 모두 61명이다. 이들은 지리적인 이유로 사역한 날짜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朴雲秀를 비롯한 14명의 京刻手는 개관 시작 때부터 마무리할 때까지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었다. 서울의 각수 朴雲秀는 영조년간의 王室墓域 石刻役事에 참여한 예가 校書館의 工匠 李時泰와 같다. 역시 1등 각수였으며, 죽책각수로도 활동하였다.<sup>30)</sup> 아마도 京刻手 가운데 가장 연륜이 깊은 각수로서 李時泰와 같은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刻僧을 제외한 47명의 鄕刻手는 지역별로 구분하면, 충청도 2명, 평안도가 15명, 황해도가 6명, 경상도가 6명, 전라도가 18명이다. 지역적 인원분포를 刻僧과 校書館의 工匠, 京刻手를 포함하면, 서울이 24명, 평안도는 20명, 황해도는 8명, 경상도는 46명, 전라도는 42명이며, 충청도와 강원도는 각각 2명이다. 동원된 각수 인원이 경상도, 전라도, 서울, 평안도의 순으로 많은데, 특별히 충청도의 인원이 많지 않은데 대해서는 어떤 해석이 필요해 보인다.

鄕刻手 가운데 주목할 만한 인물은 鎭川의 朱世贊이다. 그는 일찍이 영조 년간에 禧陵을 비롯한 5陵의 表石을 營建할 때, 都監에서 그 실명을 거론해 기송하라고 한 인물이다. 당시는 타지로 일을 나가 기송할 수 없다고 廣州府에서 보고했었다.<sup>31)</sup> 30년 전에 각별히 거명된 각수였고, 비록 2등으로 분류되었지만 外方刻手 중에 그의 이름이 대표로 기입된 것으로 보아 李時泰, 南太伯, 朴雲秀 등과 같이 당대 원로 그룹에 속한 善手였음이 분명하다.

30) 김상호, 前掲書, 110.

31) 上掲書, 105.

### 4.3 刻僧

「國朝寶鑑」의 간행에 참여한 刻僧은 모두 73명으로 지방에서 동원된 민간의 鄕刻手 47명을 크게 상회한다. 지역별로는 강원도 2명, 평안도 5명, 황해도 2명, 경상도 40명, 전라도 24명으로 경상도에서 올라온 刻僧이 그 전반이 넘는다. 이들 가운데에는 당대 寺刹本에서 각수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난 인물은 모두 13명이다.<sup>32)</sup>

먼저 평안도의 肅川, 安州의 刻僧인 登白(等伯), 有一, 學順(學淳) 세 사람은 1769년에 평안도 安州 隱寂寺에서 三門直指를 개관할 때 참여한 17명의 각수 가운데 일부였다. 당시 해당 지역의 사찰관으로 현전하는 것이 적어 자세한 활동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같은 해에 경상도 安東 鳳停寺에서 起身論疏筆削記, 梵網經, 四分戒本如釋, 請文 등을 간행한 일이 있는데, 특별히 起身論疏筆削記에는 71명이나 되는 많은 각수의 이름이 기입되어 있었다. 그 가운데 「國朝寶鑑」의 刻僧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난 이는 모두 7명이다. 慶州의 定憲(定湜), 尙州의 快曄(快燁), 星州의 摠成, 淸道の 三學, 昌原의 最言(最信), 順興의 彩順(彩淳), 慶山의 就彥이 바로 그들이다. 간기에 刻僧의 소속 사찰이나 지역이 기입된 예를 찾기 어려운데, 寺刹本의 개관에 참여한 刻僧의 사정을 이해하는데 더없이 좋은 자료가 아닐 수 없다.

星州의 刻僧 摠成은 1776년에 海印寺에서 개관한 大彌陀懺略抄要覽普勸念佛文의 刻僧 摠性和 동인 인물로 여겨진다. 어느 것이 오기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같은 海印寺板의 개관에 참여한 刻僧으로 高靈의 呂行이 있다.

위의 刻僧들이 「國朝寶鑑」의 간행 이전에 활동한 것으로 드러난 인물들이라면 전라도 綾州의 慕永(慕英)과 雲峰의 刻順(覺淳)은 「國朝寶鑑」의 간행 이후인 1799년 松廣寺에서 妙法蓮華經을 간행할 때 참여한 각수 29명 중에 포함된 인물들이다.

사찰관을 간행할 때 참여한 각수 인원을 고려한다면 평안도와 경상도, 전라도

32) 김상호, “朝鮮朝 寺刹板 刻手に 關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0), 134-192.

에서 『國朝寶鑑』의 개관을 위해 동원된 刻僧은 지역의 여러 刻僧 중에서도 특별히 선발될만한 솜씨 있는 인물들이었을 것이다. 각수를 통한 판본의 간행시기 및 장소의 추정에 참고가 되도록 『國朝寶鑑』의 개관에 참여한 각수의 이름을 자모순으로 배열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각수명 목록

각수명	지역	각수명	지역	각수명	지역
刻順	雲峰	康得秋	延安	姜信亨	平壤
姜仁柱	平壤	姜太星	羅州	戒孫	善山
高敬仁	平壤	高德孫	淳昌	高民厚	平壤
高奉民	平壤	高天浩	京	寬連	晉州
勤悅	居昌	肯文	光州	金光白	平壤
金光福	光州	金起澤	平壤	金鳳彥	平壤
金壽億	靈光	金時澤	尙州	金沃伊	肅川
金龍甲	豐川	金哲金	校書館	樂行	樂安
南太伯	校書館	雷壯	榮川	德演	星州
頓守	善山	敦有	安義	登白	肅川
慕永	綾州	妙永	康津	朴今衫	義興
朴相大	海州	朴順興	校書館	朴呂大	羅州
朴雲秀	京	朴壯云	和順	朴中得	沃川
朴中郁	平壤	朴次秀	京	朴就安	校書館
軌長	順天	卞良輝	扶安	寶貞	義城
福信	海南	鳳翼	永川	奉岑	漆谷
奉話	義城	三學	淸道	尙一	長興
璽訓	海南	瑞漢	陝川	石德崇	京
成哲	杆城	世侃	咸平	松湜	江陵
宋佑慶	順興	水澤	光州	承輝	肅川
梁處三	光陽	呂行	高靈	演覺	靈巖
永活	南平	永訓	長興	玉聖	同福
月靑	靑松	有源	晉州	有一	安州
有淨	安東	有察	和順	劉澤龍	校書館
劉澤興	京	尹鳳儀	京	尹聘莘	尙州
李得元	南平	李得春	光陽	李聖采	雲峰
李壽行	校書館	李時泰	校書館	李潤澤	京

李再春	京	李在亨	長城	李進輝	星州
李春赫	順天	李泰成	京	李宅亨	平壤
李亨道	長城	仁聖	寶城	日永	同福
自演	河陽	張鵬雲	延安	張時昌	聞慶
在冲	安東	田得春	校書館	田福喆	京
鄭光敏	平壤	鄭德彥	康津	鄭來潤	玉果
鄭文珪	興陽	鼎守	丹城	正順	宜寧
鄭淳	平壤	定寔	慶州	鄭仁己	肅川
鄭昌彬	京	鄭泰坤	平壤	丁學	安州
趙德孫	南原	趙尙賢	海州	趙仁環	白川
宗戒	淸道	朱世贊	鎭川	進玄	潭陽
贊連	晉州	彩順	順興	處尙	南原
摠成	星州	崔福煥	校書館	最言	昌原
最連	綾州	崔漢福	京	就彥	慶山
翠己	宜寧	致人	慶州	太甘	密陽
兌奎	寶城	太聖儀	京	泰曄	興海
太震輝	京	太澄	昌原	快曄	尙州
抱律	長淵	表訓	求禮	必弘	新寧
學順	安州	學宗	密陽	韓命大	校書館
漢白	陝川	玄律	長淵	惠天	慶州
慧樞	靈光	會心	慈仁	厚星	安義

## 5. 結語

정조 6년(1782)에 편찬한 「國朝寶鑑監印廳儀軌」의 기록을 통해 살펴본 「國朝寶鑑」의 개관 사정과 監印事實, 그리고 144명에 달하는 각수의 동원내역 및 활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國朝寶鑑」은 정조가 국가의 중대한 편찬사업으로 널리 배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목판으로 간행되었다. 판각용 정서본을 활자로 인출해 번각하게 된 것은 글자의 모양이 좋고, 서사하는 것보다 시간이 적게 걸린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둘째, 각수를 전국에서 동원하게 된 것은 먼저 외방에 판각을 분담시키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고, 중앙에서 동원할 수 있는 각수의 인원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校書館의 工匠뿐만 아니라, 京鄕의 민간 각수, 그리고 많은 인원의 刻僧들이 참여하게 되었으며, 특별히 승려의 입성이 법으로 금지되어 刻僧은 성 밖의 摠戎廳에 머물면서 刻字의 일을 감당하였다.

셋째, 처음에 목판을 새기는데 필요한 각수 인원은 50명 정도로 예상되었다. 5월 4일에 이미 18명의 京刻手들이 35판을 새겼으며, 5월 9일경 황해도 지역 각수가 도착하여 합류한 것을 시작으로 5월 25일에는 70여명의 각수, 6월 1일에는 110여명의 각수가 함께 일을 하였다.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여 刻字의 일은 당초 예상보다 빨리 7월 초에 마무리되었으며, 지방의 각수를 먼저 내려 보냈다. 인쇄의 일은 8월 말에 일단락되었으나, 箋文이나 跋文 등의 일로 『國朝寶鑑』의 간행사업은 11월이 되어서야 최종적으로 끝이 난다.

넷째, 校書館의 工匠 李時泰는 144명의 각수 중 가장 주목 받을 만한 인물이다. 그는 영조년간의 王室墓域 石刻役事에 다수 참여하였으며, 『國朝寶鑑』을 개관함에 있어서는 校正都刻手로 활동하였다. 그밖에 校書館의 工匠 南太伯, 京刻手인 朴雲秀, 鄕刻手인 鎭川의 朱世贊 등이 오랜 기간동안 국가의 각종 사역에 참여한 당대 원로 그룹의 善手였다.

다섯째, 『國朝寶鑑』의 간행에 참여한 刻僧은 모두 73명이며,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올라온 인원이 64명이다. 刻僧 중에서 寺刹本의 각수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된 인물은 13명이다. 당시 사찰판의 각수 인원을 고려한다면 『國朝寶鑑』의 개관을 위해 동원된 刻僧은 지역별로 각별히 선발된 솜씨 좋은 인원이었음이 분명하다.

<참고문헌>

「國朝寶鑑監印廳儀軌」.

「正祖實錄」.

김상호. “英祖年間の 王室墓域 石刻役事に 참여한 刻手 研究.” 『書誌學研究』 43輯(2009. 9). 93-114.

김상호. “朝鮮時代 刻手の 石刻 活動考.” 『書誌學研究』 41輯(2008. 12). 67-81.

김상호. “朝鮮朝 寺刹板 刻手に 관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0.

장경희. “朝鮮後期 王室의 玉工藝匠人 研究.” 『미술사연구』 15집(2001). 109-149.

정형우. “「國朝寶鑑」의 편찬경위.” 『東方學志』 33집(1982). 157-185.

